

보스톤 과 전주 열정을 만나다

전북도내에 한 음악단체가 있다. 40여년의 전통을 이어온 전북성악회(회장 유현경)가 그 주인공.

1975년에 창단된 전북성악회가 지난 20일 제39회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성악가와 피아니스트들을 회원으로 구성해 활발한 음악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전북성악회의 서른아홉번째 정기연주회를 찾아 특색있는 음악회의 저변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지난 20일 저녁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명인홀, 200여 명의 좌석이 가득 찬 관객들 사이로 감미롭고 감성이 흐르는 우리 가곡이 일곱 명의 전북지역 유명 성악가들에 의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전북성악회는 39년 전 작고하신 고(故) 이정태 선생이 1975년에 창립하여 초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장인숙, 강양이, 김정렬 성악가 등에 이어 현재 소프라노 유현경씨가 회장을 맡은 단체다.

매년 1~2회씩 정기연주회를 열면서 이번에 제39회 정기연주회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보스톤과 전주의 열정이 만나다'라는 주제로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유현경 회장과 전북성악회와의 인연은 초대회장 이정태 선생과 오페라 춘향전에 함께 출연하면서이다. 성공적인 공연의 연습과정과 공연현장을 눈여겨보신 이정태 선생과 동료 회원들의 초청으로 전북성악회에 입문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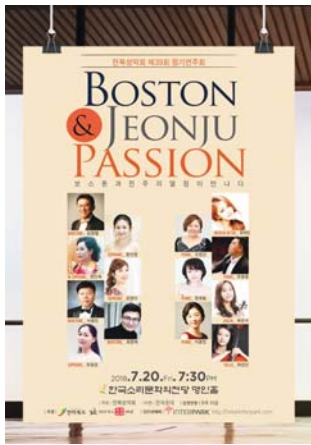
유 회장이 성악공부를 위해 전주를 오랜 기간 떠나 있다가 2002년도에 돌아왔을 때 바로 무대로 불러올린 곳도 전북성악회이다.

사실 많은 연주회를 지나면서 다른 어떤 연주회보다도 2017년도에 개최한 제38회 정기연주회를 창립자인 고(故) 이정태 선생을 다시 생각하는 기념음악회로 구성하고 개최할 수 있었던 일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올해 열린 제39회 정기연주회는 또 다른 매력으로 기획하고 구성했다. 음악의 여러 장르 무대를 열고 자라온 세대와 자라나는 세대가 어우러지는 무대이다. 나라와 지역을 넘어서는 넓은 무대를 기획해 좀 더 즐겁고 싱그러운 무대를 선물 하고자 했다.

유현경 회장은 그가 기억하는 전주 시민의 문화의식은 참으로 격조 있는 수준이라고 말한다. 그가 자리하면서 들어왔던 수많은 격려의 말들과 아낌없이 보내주었던 기립박수와 환호 있는 갈채들을 기억하며 지금도 자라나는 음악인들이 이러한 축복과 격려 속에 예술가의 자존감을 누리며 어려운 음악인의 길이지만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의미 있게 걸어갔으면 하는 마음을 품어본다.

멀리서 가까워서 음악이 좋아서 모인 연주자와 청중 우리 모두에게 격려의 시련한 생수로 가득 채워 잔을 들어 올린다.



39돌을 맞은 전북성악회

1975년 이정태 선생이 창립한 회장은 유현경 소프라노

유 회장, 이 선생과 함께 오페라 춘향전에 출연하면서 성악회와의 인연 쌓게 돼

이번 정기연주회에선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특색있는 무대로 꾸며

▲감동으로 가득했던 정기연주회 속으로

이번 39회 정기연주회에서는 1부, 한국가곡의 세계는 우리 현대사에서 중요한 정서적 근간을 지닌 서양음악의 기법 위에 우리 민족의 정서와 역사 민족적 애환 그리고 민족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한국가곡의 감성에 촉촉하게 젖어 드는 시간을 펼쳤다.

2부는 보스톤과 전주의 열정이 만나서 음악의 놀라운 감성으로 하나 되는 무대는 더욱 박진감 있고 생생한 젊음을 만끽 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포핸즈 음악으로 피아졸라의 사계 중 여름을 연주 하는 두명의 피아니스트 장유림과 이운진은 전북성악회의 반주자로 든든한 기둥의 역할을 담당 하는 오정선 교수의 뒤를 따라 전북성악회와 함께하기로 한 젊은 피아니스트들이다.

반주 역량이 훌륭할 뿐 아니라 개인적 피아노 연주능력 또한 탁월함을 보여 주는 멋진 음악으로 관객들의 귀를 즐겁게 했다.

그리고 트리오 보스토티아는 유현경 회장의 제자이자 피아니스트인 피아니스트 조영웅을 중심으로 뭉쳐진 보스톤대학 출신의 젊은 음악인으로 구성되었다. 보스토티아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보트톤적인 재즈향이 풍겨나는 카페 뮤직중 가장 박진감 있는 3악장을 청중에게 선사하며 한 여름밤의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번 연주회에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뮤지컬배우 유하진이 성악을 전공하고 뮤



소프라노이자 성악회 회장인 유현경씨의 첫번째 연주.



피아노 조영웅, 바이올린 박은수, 첼로 최연선씨로 구성된 '트리오 보스토티아'.



피아니스트 듀오 장유림씨와 이운진씨.



뮤지컬 배우 유하진씨의 열연.

3부에서는 만나는 음악은 외국곡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오페라 아리아의 섬세하고 감미로운 외국가곡 등이 관객들의 귀에 익숙하고 편안한 노래들로 구성돼 더욱 미소가 지어지는 좋은 무대가 되었다.

이날 전북성악회 연주회를 들었던 작곡가 송한나씨는 "출연자 중에 저와 함께 하는 동료 음악인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음악 하는 일장에서 일반적인 생각으로 바라보았는데 오늘 출연자 중에 이렇게 좋은 성악가로 발돋움하였던 것을 보니 놀라움을 느낀다." 라고 말하며 주변에 함께 생활하는 음악인들의 무대 음악에 대한 칭찬과 기대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 연주회에서 바리톤 김정렬, 서동민, 최준재, 소프라노 유현경, 황인영, 강양이씨와 메조소프라노 장인숙씨, 그리고 피아니스트 오정선, 장유림, 이운진씨와 트리오 보스토티아 피

아니스트 조영웅씨, 바이올리니스트 박은수, 첼리스트 최연선씨 등이 그 주인공이다.

더불어 뮤지컬배우 유하진씨등 화려한 연주자가 대거 출연하는 이번 연주회는 음악이라는 대 명제 아래 여러 장르와 여러 지역과 세대에서 하나의 음악가인 예술가들이 세상을 멋지게 수놓고 있음을 눈으로 귀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좋은 무대였다.

사실상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모든 출연진이 카푸아의 유명한 오 솔레미오를 청중과 함께 부르면서 막을 내렸다. 연주회의 회차가 거듭하고 역사가 깊어짐을 느낄수록 전북성악회의 발전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전북성악회와 함께 했던 모든 성악가들은 아주 아름답고 멋진 큰 무대를 만들어 올리고 싶은 소망으로 점차 뒤를 이을 꿈나무들을 성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

전북성악회의 연주영상은 전주음악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어 다시 듣고 싶은 음악동호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훈 기자



열정하고 있는 성악가들.